

제31대(민선8기) 권기창 안동시장 취임식 성대하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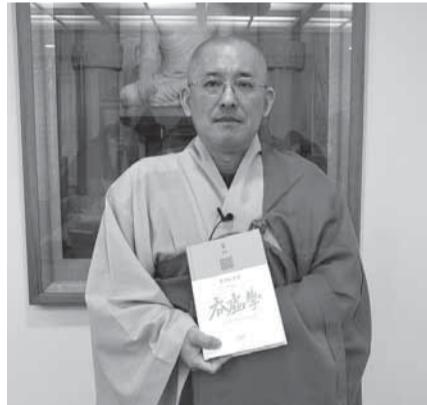


제31대(민선8기) 권기창 안동시장이 7월 1일 오전 10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130~5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의원, 시의원, 전 안동시장들, 재경안동향우회원, 시내 기관단체장, 유림, 노인회, 주민자치위원,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 시장은 부인 황순녀 여사와 행사장

입구에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취임식을 개최하는 장소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한국문화테마파크,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등이 아직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취임식을 통해 이 3대 문화권 사업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간)



를 중심으로”는 대학원생 부분에서 제3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탄허 스님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탄허 전문가이다. 〈편집국장 권영환〉

탄허학의 대가 문광 스님

탄허(存虛, 1913~1983) 스님은 유불선에 정통하고 서양사상까지 섭렵하여 동서양을 회통한 학승이었다. 특히 그는 50여년 전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놀라운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탄허 스님의 깨달음과 학문을 문광(文光) 스님이 탄허 사상을 종체적으로 조명하여 탄허학으로 탄생시키며 〈탄허학 연구-21세기 한국학의 새 지평〉을 책으로 출간했다.

문광 스님은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나 8세부터 포항공대 명예교수이자 국제로

학회 이사인 아버지 권오봉 교수로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을 공부했다. 중학교 때는 대구향교에서 이수락 선생 문하에서 논어, 맹자 등 사서와 통감, 시경을 수학했다. 1997년 연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중불교에 막혀 명산대찰을 찾아 기도하면서 중 2001년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2008년 다시 동국대 선학과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연세대 석사 논문인 “한중 선사들의 유가 중화설(中和說)에 대한 담론 비교 연구-갑산, 지역선사와 성철, 탄허선사

를 중심으로”는 대학원생 부분에서 제3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탄허 스님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탄허 전문가이다. 〈편집국장 권영환〉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25)



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9. / 권인호, ‘동북아시아 사회·정치 철학의 특징과 현실’, “유교문화연구” 제52집, 한국유교학회, 2013. 참조)

이에 앞서 1607년 당시 시마즈(島津; 뒤의 사쓰마)번이 에도(江戶; 도쿠가와) 막부의 허락을 받고 류큐왕국에 출병·정복을 하였고, 19세기 들어서 구미(서구유럽·미국; 구미歐米 12개국 시찰단; 한중은 미국을 ‘아름다울 미美’, 일본은 ‘쌀 미米’ 한자표기)의 선박이 내왕하였다.

1853~54년 미국 페리(Perry호) 함대가 4차례 내항하여 류큐-미국 사이의 수호조약을 체결하였고 처음부터 페리는 류큐를 미국에 병합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조수(長州)번(육군중심)과 사쓰마번(해군중심)이 주도하여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明治) 유신(維新; 1868년) 이후 1872.10월에 중국(청나라)에게 ‘유구왕국을 일본의 유구번(琉球藩)으로 한다.’고 외교 교섭하였고, 유구왕국은 유구의 어민이 대만(臺灣; 타이완)의 북부에서 피살된 것을 핑계로 1874.7월에 대만 침략을 감행했다.

1879.3월에 무력으로 유구왕국 제25대 왕이자 마지막 국왕 상태(尚泰; 일본어 ‘쇼타이’, 1843~1901)왕을東京으로 끌어갔고 유구번으로 했다가 오키나와(沖繩)현(縣)으로 강등하였다.

1945년 3월~6월 23일 전투에서 약 20만 명의 군민(軍民)이 사망하였고 미국의 승전으로, 오키나와는 미국령이 되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체면적(2271km²) 약 11%에 달하는 245.26km²에 미국 해병대를 중심으로 42개의 미군기지에 2만 9천명이 주둔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일본의 차별·무시정책은 독립운동을 촉발선언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 올해 6월 말까지 ‘류큐(琉球) 독립운동’ 혹은 ‘오키나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한국군이 우리를 후원하여 일본에서 독립해 한국령으로 해줄 것’을 발표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기(和田春樹), 이원덕 옮겨

연산군에 대한 진성대군(眞成大君; 후일 ‘중종반정’과 광해군에 대한 ‘인조반정’은 전혀 성격이 달라 명나라 조정에서도 의심하였다.

인조의 반정공신에 대한 훈공분배의 불공정과 외교·국방·안보·내치에서 무능과 무지로 이듬해에 ‘부원수 이팔(李弼)의 란(1624년)’으로 공주까지 파천하였고, 후금(後金)이 쳐들어 와 정묘호란(1636.12~1637.1)에서 강화도가 점령당하고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어 항복하여 치욕을 겪었다.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학살당하고 수십만의 포로가 소현세자·세자빈 강씨, 봉림대군(后立 豪宗)도 잡혀 만주 봉천(淸陽)로 후일 북경으로 끌려갔다.

겨우 송환이나 탈출한 극소수 사람들도 남자는 ‘호로(胡奴; 虜자식(식); 새끼)’로 여자는 ‘화냥년(還鄉女)’ 욕설과 대우를 감당해야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삼무(三無) 정권’ 비판소리는 ‘민심이 천심’으로 들린다.

양명학·서학·천주교·농민항쟁·동학 등에 비판하며, 주자성리학만을 도통(道統)으로 주희-이이-송시열을 존중하였던 ‘척사위정론’을 주장해왔던 화서학파 이향로(李恒老)의 제자인 최익현(崔益鉉)이 경복궁 중건과 서원철폐(650여개에서 47개로 1인 1원·묘·사(院廟祠)와 특히 만동묘, 전국에 송시열을 모시는 원사들이 44개 정리)와 여흥민씨 세도정치를 열게 되는 민태호와 결탁(?)하여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恒應)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1871.10.25) 그 하야를 주장하는 상소를 연이어 올리자(그해 11.3) 최익현은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그리고 이를 뒤에(11.5) 대원군이 실각하였고, 고종(高宗)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다. 조선말기 서인(노론)과 여흥 민씨 외척세력에 의한 이른바 망국의 ‘세도정치(畿西, 조씨, 민씨)’ 기운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삼정문란’에 이어 매관매직과 무당(진령군)이 국정을 놓고 매국노들이 되어갔다. (박종인, “매국노 고종”, 와이즈맵, 2021. 참조)

(다음호에 계속)

광고, 독자투고 안내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연락처

-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 E-mail: ankwon2695@naver.com / andongkwonmun@daum.net

◆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